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459>

JCCT 2022-9-56

##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살펴본 한미관계: <한미정상회담> 관련 뉴스와 정보를 중심으로

### Korea-U.S. Relationship appearing in the Newspaper and Social Media: Based on the news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Korea-U.S. summit>

홍주현\*

Juhyun Hong\*

**요약** 한국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한미관계와 관련해 어떤 의제가 확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미정상회담 관련 뉴스와 정보에 대해 의미연결망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는 문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과소평가했다. 조선일보의 주요 정보원은 야당이였다. 반면,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은 문대통령의 방미를 강조하고, 방미 성과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의 주요 정보원은 여당이였다. 보수, 진보 언론 모두 미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바이든 정부의 우선적 외교정책으로 북한 인권을 언급했고, 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미관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으로 뉴스검색 채널 역할을 하는 유튜브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동영상을 검색하고 영향력이 있는 동영상을 찾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영향력 상위 영상들은 정부에 호의적이었으며, 진보 성향의 신문과 마찬가지로 문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전달했다.

**주요어** : 뉴스 프레임, 정치적 성향, 유튜브, 미디어, 네트워크 분석

**Abstract** This study searched and analyzed news and information on the Korea-U.S. Summit to explore which political agenda is spreading among Korean newspapers and social media. The result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on the one hand, the conservative-leaning newspaper, Chosunilbo, covered the unresolved issue between two countries. The principal source of news was the opposition party. On the other hand, the progressive-leaning newspaper, Kyunghany Sinmun, highlighted President Moon's visit to the United States and described the visit to the United States as an achievement. In this paper, the principal source of news is the ruling party. Both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newspapers did not present a negative view of the United States. In the case of Chosunilbo, it mentioned that foreign policy priority of President Biden i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f the two countries do not solve this issu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not develop further. Second, I searched YouTube videos about the Korea-U.S. summit and conducted a network analysi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YouTube videos and explore their relationship the each oth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10 most influential videos portrayed the Moon government positively. These videos held the achievement of the visit to the United States in highly esteem and framed it positively, similarly to the progressive newspaper.

**Key words** : News Frame, Political Tendency, YouTube Channel, Media, Network Analysis

\*정회원, 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부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6월 27일, 수정완료일: 2022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18일  
(이 논문은 2021년 9월 30일 제주평화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Received: June 27, 2022 / Revised: July 15, 2022

Accepted: August 18, 2022

\*Corresponding Author: joohssy@kookmin.ac.kr

School of Media & Advertising, Kookmin Univ, Korea

## I.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언론학 분야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언론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한미관계, 북한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보수 언론인지, 진보 언론인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주요 사안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며, 서로 다른 요소들을 부각해 정치 현실을 구성했다.

손영준·홍주현(2018)은 경향, 한겨레, 조선, 동아 4개 매체가 한반도 핵 위기를 어떻게 프레임 하는지 내용분석을 통해 보여줬다. 진보 신문은 핵 위기의 원인을 북한의 자위용 핵 능력 완성 의지와 미국의 핵 억제 정책의 충돌에 있다고 봤다. 반면에 보수 신문은 비핵화를 갸 북한이 핵 위기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핵 문제 해법, 주한미군의 역할, 북미 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보수와 진보의 입장 차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강조했다[2].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 보도를 보면,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5월 23일 ‘국민의힘 “文대통령, 자아도취 빠질 때 아냐…문제는 실천,” 5월 24일 “44조원짜리 크랩 케이 크 오찬”, 삼성·현대·SK·LG 투자 없이 文, 바이든과 점심 가능했겠나’, ‘허언으로 끝난 백신 스와프, ‘국군 55만명분’에 감을할 때인가’ 라는 헤드라인으로 방미 성과를 평가절하했다. 이에 비해 경향신문은 5월 23일 ‘민주당 “한미정상회담 건국 이래 최대 성과…가슴 벅차다,” 5월 24일 “국격이 뽐뽐” “자긍심 느껴져” 한미회담 두고 민주당 ‘호평 일색,’ 5월 29일’ 한미정상회담, 미일 정상 회담과 달랐던 것은’이라는 헤드라인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높이 평가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한미관계를 보도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적 성향을 상징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른 프레임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했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기존 매스미디어 중심의 의제 설정 과정이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변화한 점에 주목해 언론매체 외에 뉴스 검색 기능이 강한 유튜브를 분석대상에 포함해 한미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논의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는 뉴스와 시사 정보를 검색하는 주요 채널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언론 보도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3].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한미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내용분석과 의미연결망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내용분석은 언론에 많이 보도될수록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언론 보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실제 언론에서 사용한 단어들의 연결 관계를 통해 언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한미관계 관련 동영상 중에서 어떤 영상이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는데 유용한 분석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 언론에 나타난 한미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를 통해 언론이 한미관계를 보도하는 논조에 정치적 성향이 미치는지 알아보고, 한미관계, 남북관계를 보도할 때 바람직한 언론의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언론의 한미관계 보도 프레임

시간과 지면의 제약으로 언론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없다. 언론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뉴스를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효율적으로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관행’이다. 게이트키퍼는 언론의 대표적인 관행 중 하나인데, 언론사는 뉴스 가치를 기준으로 아이템을 선정하고, 어떤 요소를 강조하고 어떤 요소를 배제할지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뉴스의 내용에 기자 개인의 속성, 뉴스 조직의 관행, 뉴스 조직의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언론은 현실(reality)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일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고, 다른 요소는 배제하면서 현실을 다르게 구성하게 된다[4].

언론이 세상을 보여주는 창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프레임은 특정 요소를 강조하고, 다른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수용자들에게 서로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5][6]. 브리세(Vreese, 2005)는 프레임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프레임이 나타나는 방식인 프레임 구축(building)과 프레임을 접한 독자와의 상호작용인 프레임 설정(setting)을 포함하는 동적인 과정으로 봤다[7]. 프레임 구축은 뉴스 프레임의 구조적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말하는데, 여러 요소 중에서 저널리즘 내부 요인은 언론인과 뉴스 조직이 문제를 구성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1996)에 따르면 언론이 현실을 구성할 때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기자 개인적 차원의 교육수준, 종교, 성별, 인종에서부터, 미디어 관행 수준에서 뉴스 가치, 게이트키퍼, 출입처 제도, 조직 내적 차원에서 미디어 조직의 정치적 성향, 조직 문화, 조직 외적 차원에서 수용자나 광고주의 압력, 이익단체, 시민단체의 영향, 국가 차원에서 정부의 성격, 이데올로기 차원에서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 연구는 여러 요인 중에서 미디어 조직의 정치 성향에 주목했다.

한미관계, 남북관계를 보도하는 언론의 시각은 정치적 성향의 영향을 받는다. 이원섭(2006)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언론이 남북문제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분석했는데, 김영삼 정부는 보수적 기조를 유지했고, 김대중 정부는 진보적 태도를 나타냈다고 했다. 정권이 언론의 정치 성향과 일치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보도했으며,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은 정권과는 상관없이 유지됐다고 강조했다[8]. 김성수(2011)는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라는 중요한 정책이 본질은 사라지고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핵심 쟁점을 깊이 있게 보도하기보다는 찬성과 반대에 치중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9].

손영준·홍주현(2018)의 연구 결과도 남북관계, 한미관계를 보도할 때 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진보와 보수 성향 언론의 사설을 분석한 결과, 진보와 보수 언론은 북핵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접근할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도 달랐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한미관계 보도에서 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정치 성향에 따라 한미관계가 어떻게 프레임 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 2. 소셜미디어 중심의 의제설정과정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 정보의 확산

소셜미디어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기존 매스미디어 중심의 의제 설정 과정을 독자들이 의제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독자 중심으로 바꿨다. 길라디, 게슬러, 쿠블리 및 뮐러(Gilardi, Gessler, Kubli & Müller, 2021)는 정치적 의제설정 과정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전통적인 미디어의

게이트 키퍼 능력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뉴스생산자가 의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들은 전통적 미디어 의제, 정당의 소셜미디어 의제, 정치인의 소셜미디어 의제 간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 이 의제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 문제를 다룬 소셜미디어 의제가 사회적 의제로 쟁점화하는데 소셜미디어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10].

소셜미디어는 오늘날 사회의 의제가 형성되고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정치 정보의 확산은 수용자의 정치 현실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11]. 피첼(Feezell, 2018)은 실험 연구를 통해 페이스북에서 정치 정보에 노출된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공공의제를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류 미디어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습득한 이용자들은 정치 정보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관심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이용하면서 올드 미디어인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년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용자들이 뉴스와 시사 정보를 이용하는 주요 채널로 자리매김했다.

모라-칸탈롭스, 얀, 산체스-아론소(Mora-Cantalops, Yan, & Sánchez-Alonso, 2019)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고도의 상호작용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준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 브렉시트(Brexit) 국민 투표 이슈가 트위터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확산하는지 분석했는데,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는 정치적 사건이 확산하고,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정치 정보를 통해 사건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소셜미디어의 네트워크 특성이 이슈가 확산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할스버그와 나이트(Halberstam & Knight, 2016)는 트위터 사용자 간의 링크 및 상호작용 데이터를 네트워크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수의 정치 집단보다 다수의 정치 집단에 소속된 이용자가 더 빠르게 더 많은 정보에 노출됐다고 했다[13].

이밖에도 이용자가 비슷한 시각의 정보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정보가 더 빨리 확산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핀레이슨(Finlayson, 2022)은 방송이 주도하는 포폴리즘 스타일이 디지털 미디어에서 강화된다는 것을 유튜브 사례분석을 통해 설명했다. 그는 유튜브 플랫폼이 정보 생산자와 독자를 직접 연결하는 특성이 있으며, 정보 생산자는 이용자, 구독자의 충성도를 높이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 콘텐츠에 신경을 쓴다고 했다. 생산자와 구독자가 직접 연결되고, 구독을 통해 이익이 창출되는 유튜브의 특성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정치인이 지지자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이들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14].

선행연구를 통해 소셜미디어가 정치 정보를 생산하고, 이용자들이 여러 종류의 정치 정보를 소비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소셜미디어 중에서 유튜브는 뉴스를 검색하는 정보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한미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한국의 언론매체는 한미관계를 어떻게 프레임하는가?

둘째, 매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한미 관련 이슈를 보도할 때 의제, 논조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소셜미디어에서 한미관계에 대해 어떤 메시지가 확산하는가?

넷째, 소셜미디어에서 저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한미관계 관련 의제, 논조에 차이가 있는가?

### I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한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뉴스의 헤드라인과 본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내용분석을 했다. 소셜미디어 중에서 주요 뉴스원으로 자리매김한 유튜브에서 의제가 어떻게 확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영상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표 1. 연구방법

Table 1. Research Design

연구주제	연구내용	연구방법
언론에 나타난 한미관계	뉴스 프레임 정치성향별 의제, 논조	헤드라인 의미연결망 분석, 본문 텍스트 분석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한미관계	한미관계 유튜브 의제 정치 성향별 의제, 논조	유튜브 동영상 네트워크 분석

#### 2. 분석대상 이슈 선정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2021년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한미정상회담 이슈를 선택한 이유는 한미관계의 현안(예를 들면, 비핵화, 주한미군 철수, 미사일 발사, 북한 인권 등) 관련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매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의제, 논조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보수적 성향의 조선일보와 진보적 성향의 경향신문을 선택했다. 자료수집 기간은 4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검색어는 한미정상회담이다.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검색한 결과 조선일보 39건, 경향신문 30건 등 총 69건의 기사가 검색됐다. 유튜브 비디오는 노드 엑셀 프로그램<sup>2</sup>을 통해 수집했으며, 총 397개의 비디오가 수집됐다.

표 2. 분석대상 매체 및 수집 자료

Table 2. Subject of Analysis and Materials collected

매체종류	매체명	자료 건수
신문	조선일보	39
	경향신문	30
유튜브	유튜브	397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의미연결망 분석과 텍스트 분석을 했고, 유튜브 비디오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단어와 단어의 관계 분석을 통해 기사에서 강조한 단어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내용분석으로 볼 수 있다[15]. 내용분석이 분석 목적을 정하고 출현 빈도를 측정하는 것과 달리 의미연결망 분석은 분석대상 텍스트에서 언급한 단어를 분석함으로써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텍스트 분석은 질적인 분석 방법으로 기사에서 사용한 문장을 읽으면서 문장에서 언급한 단어가 내포한 의미를 찾고, 문맥을 이해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는 분석 방법이다.

<표 3>은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네트워크와 유튜브 비디오 네트워크의 특성을 보여준다. 조선 일보는 274개의 단어가 1,724번의 연결을 나타냈고, 경향신문은 175개의 단어가 866개의 연결을 나타내 조선 일보가 경향신문보다 더 다양한 내용을 헤드라인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비디오는 379개가 수집됐고, 단일연결 2,411, 중복연결 260,284로 매우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네트워크 속성  
 Table 3. Network Attributes

네트워크 종류	매체명	Overall Metrics	값
헤드라인 의미연결망 네트워크	조선	노드	274
		단일 연결	1724
		전체 연결	1724
	경향	노드	175
		단일 연결	366
		전체 연결	366
유튜브 비디오 네트워크		노드	397
		단일 연결	2411
		중복 연결	260,284
		전체 연결	262,295

네트워크 분석에서 영향력 있는 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단어와 단어 간의 중심성 값을 측정했다. 중심성은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으로 알아봤다. 연결 중심성은 특정 노드와 다른 노드의 연결 수를 나타낸다.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특정 노드와 직접 연결된 노드 간 거리의 합을 평균 낸 것으로 매개 중심성이 크면 네트워크에서 많은 사람을 알거나 많은 단어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3. 주요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 1) 정치 성향

매체의 정치 성향은 보수, 진보, 중립으로 구분했다. YTN, KBS, MBC 같은 주류 언론은 중립으로 분류했고, TBS 김어준의 정치공방처럼 정치 성향이 드러나면 진보로 분류했다. 유튜브 채널의 경우 ㄴ주류 언론은 위 기준을 적용했고, 인터넷 언론은 회사 소개, 기사의 논조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개인 채널은 동영상 내용과 저자(author)의 정치 성향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 2) 뉴스 생산 환경

뉴스 생산 환경은 더즈(2002)의 분류를 기준으로 주류 언론, 인터넷 언론, 개인 채널로 구분했다. 주류 언론은 편집자의 조정과 통제가 큰 신문, 방송이고, 인터넷 언론은 신고만 하면 언론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주류 언론보다 편집자의 조정과 통제가 약하다. 개인 채널은 개인이 뉴스나 정보를 생산한다[16].

내용분석은 예비 조사를 거쳐 2021년 9월 2일부터 5일까지 연구자와 학생이 했으며, 홀스티 계수로 측정할 코드간 신뢰도는 정치 성향, .85, 뉴스 생산 환경, .90으로 높았다.

## IV. 연구 결과

### 1. 뉴스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확산 네트워크 분석 결과

#### 1) 한미정상회담 관련 기사의 헤드라인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한미정상회담 보도와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한국과 미국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사의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과 기사 본문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했다. 유튜브를 통해 확산된 이슈를 알아보고, 영향력이 있는 동영상 찾기 위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한미정상회담 관련된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조선일보는 대북 문제, 북한 인권, 백신 스와프 등 양국 현안을 주로 다뤘다. 헤드라인에서 정상회담 당사국인 ‘한미’ 가 연결성 96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매개 중심성은 7814.078로 가장 커 한미정상회담 관련 기사의 헤드라인에서 핵심 단어임을 알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을 제외하고 조선일보가 주목한 이슈는 미국과의 백신 관련 협상이었다(백신: 연결성 69, 매개 중심성 5283.358, 스와프: 연결성 27, 매개 중심성 733.966).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된 단어로는 44조, 환상, 직접적으로, 우려, 인권을 들 수 있다. 문 정부의 44조 지원을 ‘44조원 짜리 크랩 케이크’로 표현해 방미 성과를 평가절하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중에서 인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양국 모두 현 상황을 ‘우려’한다고 언급한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삼성, SK, LG에 직접 연락한 것에 대해서도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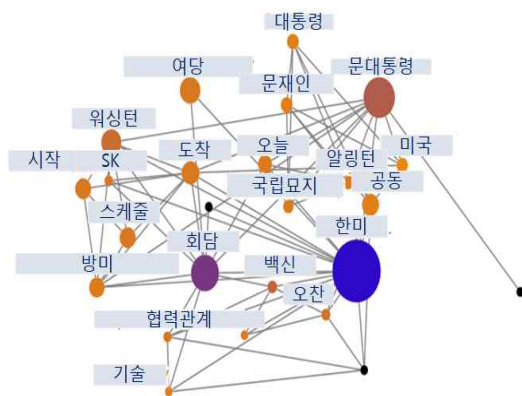


경향신문에 나타난 양국 관계는 ‘협력 관계’였다.

표 5. 경향신문 헤드라인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Table 5. Analysis results of Kyunghyang Shinmun's headline semantic network

단어	연결성	매개중심성
한미	103	7700.920
문대통령	38	3134.557
회담	66	2457.975
여당	16	1240.000
워싱턴	14	1188.358
도착	18	889.956
공동	12	798.481
스케줄	17	688.500
시작	17	688.500
방미	13	633.500
오늘	13	480.952
문재인	12	292.764
대통령	12	292.764
미국	7	250.602
알링턴	13	181.860
국립묘지	13	181.860
백신	29	151.000
오찬	19	92.533
마스크	16	53.550
협력	18	39.167

경향신문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래프에서 보라색일수록 연결 중심성이 큰 것을 의미하고, 노드 크기는 매개 중심성 값을 나타낸다. 노드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크다고 할 수 있다.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그림 3. 경향신문 헤드라인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Figure 3. Analysis of the Meaning Network of Kyunghyang Shinmun Headline

‘한미’의 매개 중심성이 가장 커 양국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이 주요 행위자로 방미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주로 인용 보도했다. 단어 간 연결을 보면, 한미-정상, 한미-민주당, 문대통령-워싱턴, 문대통령-도착으로 연결돼 회담이 개최되는 것에 주목하고, 문대통령의 일정을 중점적으로 보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문대통령-워싱턴-도착, 문대통령-알링턴-국립묘지, 문대통령-워싱턴-일정, 문대통령-도착-스케줄로 연결돼 방미 일정에 주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한미정상회담 관련 기사의 본문 텍스트 분석 결과  
 다음으로 기사 내용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했다. 그 결과,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한미정상회담 관련 의제와 논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의제를 비교해 보면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 주목해 ‘미국 우선주의’ 프레임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최우선 대북외교정책이 북한의 인권임을 강조하고, 정상회담 전에는 대북 전단에 대한 반응도 언급했다.

정상회담의 성과를 문 정부의 나르시즘이라고 비판했고, 정상 간 오찬도 44조원의 지원과 맞바꾼 것으로 평가절하했다.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은 긍정적으로 보도했지만 문 정부의 한미정상회담 성과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은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양국 관계는 협력, 동맹으로 기술했으며, 양국 간 백신 동맹을 강조했다. 여당의 반응을 최대 성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직접 인용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다만 정의당이 북핵 문제에 대해 계획이 없고 백신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는 비판을 보도함으로써 부정적 평가도 함께 전달했다.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과 텍스트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진보 성향의 신문은 문 정부의 방미 성과를 강조함으로써 문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보수 성향의 신문은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을 보도하면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한편, 문 정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했다. 환상, 나르시즘, 우려 등의 표현으로 비판 프레임을 형성했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미국과 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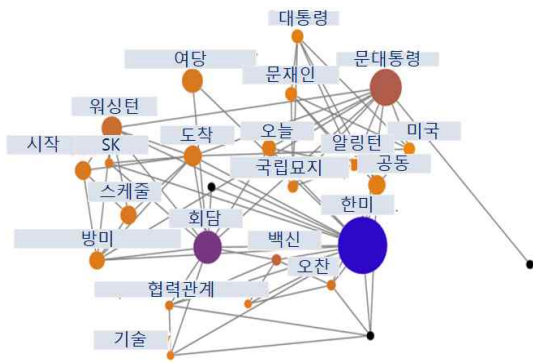
부각했다. 44조 원의 지원 덕분에 정상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해석함으로써 정상회담 성과를 과소평가했다.

2. 연구문제 2: 소셜미디어를 통한 의제 확산 네트워크 분석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제가 어떻게 확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한미정상회담을 검색어로 해서 검색된 397개의 동영상 연결 관계는 <그림 4>와 같다. 노드의 크기는 매개 중심성 값을 나타낸다. 매개 중심성 값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저자(author)를 표시했다.

네트워크의 중앙에 다른 비디오 채널과 상호작용이 활발한 채널들이 위치했고, 네트워크 주변에 연결이 없는 비디오가 흩어져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네트워크는 노드 간 방향성이 있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A → B는 A 동영상을 시청한 후 B 동영상을 시청한 것을 의미한다.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굵은 선으로 표시된다.

네트워크 중앙에 청와대 채널, KTV 국민방송과 같은 정부 채널과, YTN, 채널A, MBC NEWS 같은 언론사 채널, 김작가 TV, 슈퍼개미김정환 같은 개인 채널 등 다양한 채널이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그림 4. 한미정상회담 관련 유튜브 비디오 네트워크 분석결과  
Figure 4 Analysis of YouTube Video Network on the Korea-U.S. Summit

<표 6>은 영향력 상위 10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준다. KTV 국민방송이 문 대통령의 추모의 벽 착공식 방문을 보도한 비디오의 조회 수가 132만여 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위 10개의 동영상 중 KTV 국민방송 비디오가 4개를 차지했고, 이밖에 MBCNEWS와 YTN news가 각각 3개씩이었다.

표 6. 영향력 상위 10개 유튜브 동영상 네트워크 분석결과  
Table 6. Top 10 Influential YouTube Video Network Analysis Results

저자	제목(title)	조회 수	외향 연결성	매개 중심성
MBC NEWS	[정참시] "문 대통령 너무 고맙다"...야당의원이 극찬한 이유는? (2021.05.25/뉴스데스크/MBC)	812,221	170	6511,626
KTV 국민방송	문 대통령이 보여준 진짜 예우는 행사가 끝난 후에?! 미국 공식방문 일정 중 참석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1,320,740	60	2788,644
MBC NEWS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질의응답 (2021.05.22/뉴스투데이/MBC)	382,310	150	3052,318
YTN news	[돌발영상] 흥미로운 질문 / YTN	1,022,085	13	2959,843
KTV 국민방송	참모진도 말린(?) 한미 정상회담 6시간 릴레이 소동! 만나자마자 카메라 등치고 비밀을 만들고, 동질감을 확인하며 이어간 한미 단독회담, 소인수 회담, 확대회담의 결말은?!	960,762	170	2741,208
KTV 국민방송	문 대통령의 한 마디에 해리스 부통령이 웃었던 까닭!?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뤄진 미 해리스 부통령 접견 폴스토리	852,051	146	2513,296
MBC Radio	[정치인싸] 한미정상회담 가장 큰 성과는 미사일지침 종료? 그럼 이제 윤석열은 미사일 공부하러?	200,870	110	2353,218
YTN news	[뉴있지] 日 언론 "점심도 졌다"...훈장 수여식 문 대통령 홀대? 사실은 / YTN	453,668	138	2323,817
KTV 국민방송	미 하원의장,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 특별히 챙겨온 카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하원지도부와 간담회, 한국계 의원들도 참석한 생생한 현장 분위기!	870,081	156	1746,151
YTN news	[속보] 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마치고 귀국..."최고의 회담"	67,131	107	1591,300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방문 일정 보도, 한미정상회담 성과, 한미정상회담 뒷이야기, 일본의 회담과 비교 등 긍정적인 내용과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상위 10개 동영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유튜브에서 문 대통령의 방미 관련 부정적인 내용은 보수 성향의 중편 채널 동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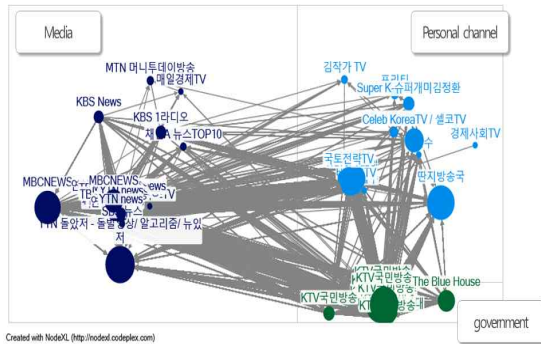


그림 5. 정치 성향별 유튜브 네트워크 그룹 분석 결과  
 Figure 5. Results of YouTube Network Group Analysis by Political Tendency

<그림 5>는 매개 중심성 1,000 이상인 경우만 표시한 것으로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매개 중심성 값이 큰 것을 나타낸다. 유튜브 저자를 뉴스 생산 환경에 따라 언론사 유튜브 채널, 정부 채널, 개인 채널로 구분하고, 그룹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뉴스 생산 환경은 전달하는 메시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 채널 중에서는 MBC NEWS와 YTN 동영상의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고, 정부 채널은 KTV 국민방송 비디오가 다수 있고, 청와대 채널도 보인다. 개인 채널은 국토전략TV, 판지방송국의 매개 중심성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언론사 채널을 연속해서 시청한 경우가 많다. 또는 언론사 비디오 채널을 시청한 후 정부 채널을 시청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정부 채널을 먼저 시청하고 언론사 채널이나 개인 채널을 시청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개인 채널을 먼저 시청하고 언론사 채널이나 정부 채널로 향하는 경우는 많지 않는데,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검색할 때 영향력이 큰 언론사 채널이나 정부 채널을 추천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채널별로 전달한 메시지를 보면, 언론사 채널 중에서 보수 언론은 백신 스위프의 남은 과제에 주목하고,

한미정상회담 관련 북한 반응에 집중했다. 정부 채널은 미국의 호의적인 반응과 교민 만남, 공동기자회견, 크랩 케이크 등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뒷이야기를 전달했다. 개인 채널은 일본과 비교하면서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초대박, 미국이 성의를 보였다 등으로 극찬했고, 중국의 반응을 전달하기도 했다. 개인 채널 중 경제 주식 채널은 한미정상회담 관련 수혜 주를 알려줬다. 문 대통령 방미에 대부분 호의적인 개인 채널과 달리 정치인 채널인 안철수 채널은 문 대통령 방미 성과를 ‘요란한 빈 수레’로 표현해 평가절하했다.

영향력 상위 10개 동영상의 경우 진보 성향의 언론은 정부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보수 성향의 언론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수 성향의 개인 유튜브 동영상도 방미 성과를 평가절하해 한미관계를 바라볼 때 저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뉴스 프레임이나 현실 구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결론

이 연구는 매스미디어 중심의 의제설정 과정이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한 것에 주목하고 주류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이슈가 어떻게 확산하는지도 함께 살펴봤다. 언론 매체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의 정치적 성향이 한미관계를 보도할 때 의제설정이나 논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언론에 나타난 한미관계는 매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손영준·홍주현, 2018).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 북핵 문제, 북한 미사일 발사, 남북대화 등 북한 현안 관련 입장 차가 상당히 크다. 한반도 문제의 해법도 다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한미 양국 현안 관련 입장 차는 역사적으로 형성됐고, 언론도 이를 그대로 따른다는 점에서 한미관계를 보도하는 언론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실을 객관적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미 정상 회담 관련 언론 보도와 유튜브 동영상 분석한 이 연구의 결과를 봐도 이와 같은 입장 차가 그대로 드러난 것을 알 수 있다. 보수 성향의 언론은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북한 인권 등 현안에 주목하고, 백신 스위프 협정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언론은 문 대통령의 방미 자체에 주목하고, 방미 성과를 두드러지게 보도했다. 보수 매체, 진보 매체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나 태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 언론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한미관계를 프레임 하는 것은 국민이 한미관계를 객관적 시각으로 인식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한미관계가 주변국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관계라는 점에서 해결방안으로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한미 현안을 보도할 수 있는 전문 기자의 양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튜브에서 한미관계를 보는 시각도 언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유튜브에서 영향력 상위 10개의 동영상은 친정부 성향이거나 진보 성향의 매체인데, 문 정부의 방미 성과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 한미 정상 회담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보수 성향의 매체 보다 진보 성향 매체의 영향력이 컸고, 방미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활발하게 확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영향력 상위 10개 동영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보수 성향의 개인 채널이 한미 정상 회담 관련해서 부정적 메시지를 올렸다. 이러한 결과는 한미 정상 회담 성과가 정치 성향의 틀에서 판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신문과 유튜브 비디오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기사 수가 적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분석대상 언론매체 수를 늘려서 보다 많은 기사를 수집했다면 의제, 논조를 비교하고 일반화하는데 유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미연결망 분석도 헤드라인에 대해서만 했는데, 기사의 텍스트에 대해서 의미연결망 분석을 한다면, 언론이 강조하고자 한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Y. J. Son & J. Hong, 'Newspaper Frame Analysis on the Nuclear Crisis in Korean Peninsula,'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22(3), 175-210, DOI: 10.15517/PSC.2019.10.31.3.175
- [2] P. J. Shoemaker & D. Reese,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 on Mass Media Content*, Second Edition, New York: Longman Publishers., 1996.
- [3] Social Media User Survey 2021, Korea Press Foundation.
- [4] P. J. Shoemaker & D. Reese, \_\_\_\_\_, 1996.
- [5] S. S. Kim, "The Role of Symbolism and Complication of Korea Society: Focusing on Korea and the U.S. FTA," *The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23(1), 1-34., 2011.
- [6] F. Gilardi, T. Gessler, M. Kubli & S. Müller, "Social Media and Political Agenda Setting," *POLITICAL COMMUNICATION* 2021, 1-22. <https://doi.org/10.1080/10584609.2021.1910390>
- [7] de C. Vreese, "News Framing: Theory and Typology," April 2005 *Information Design Journal* 13(1):51-62, DOI: 10.1075/idjdd.13.1.06vre
- [8] W. S. LEE, Ideological Tendency and Assessment of the Government Policy through Reporting South-North Korea Issue - Comparative Analysis of Editorials under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35, 329-411.
- [9] S. S. Kim, \_\_\_\_\_, 2011.
- [10] J. Feezell, "Agenda Setting through Social Media: The importance of incidental News Exposure and Social Filtering in the Digital Era,"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71(2): 482-494. <https://doi.org/10.1177/1065912917744895>. 2018)
- [11] Feezell, \_\_\_\_\_, 20'8.
- [12] M. Mora-Cantalops, Yan, & S. Sánchez-Alonso, "Diffusion Patterns of Political Content Over Social Networks", Visvizi, A. and Lytras, M.D. (Ed.) *Politics and Technology in the Post-Truth Era (Emerald Studies in Politics and Technology)*, Emerald Publishing Limited, Bingley, pp. 23-42. <https://doi.org/10.1108/978-1-78756-983-620191003>
- [13] Y. Halberstam & B. Knight, "Homophily, group size, and the diffusion of political information in social networks: Evidence from Twitte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43, 73-88, <https://doi.org/10.1016/j.jpubeco.2016.08.011>.
- [14] A. Finlayson, "YouTube and Political Ideologies: Technology, Populism and Rhetorical Form." *Political Studies*. 70(1), 62-80, 2022. doi:10.1177/0032321720934630
- [15] D. Hansen, B. Shneiderman, M. A. Smith & I. Himelboim, *Analyzing Social Media Networks with NodeXL: Insights from a Connected World*. 2nd Edition, (Burlington:MK)
- [16] M. Deuze, "The web and its journalism: considering the consequence of different types of news media online." *New Media & society*, 5 (2), 203~230.